

영암군, 방문 치매조기검진 추진

사회적 고립 등 증상 보이는 어르신 30명 대상
마을회관 방문, 치매예방교육·치매조기검진



영암군은 지난 6월 18일 치매극복 선도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우재가노인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돌봄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 및 우울감 악화로 인지장애 증상을 보인 분들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정우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지원사의 협조로 코로나19 예방백신 1, 2차 접종 완료자 중 인지저하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르신들의 편의를 고려해 치매안

심센터 전문요원들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조기검진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로 등록되면 치매치료관리비 월3만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조호물품 등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지원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령층 주민들의 경우 코로나19 등 사회적 환경에 취약하며, 정신건강 악화 상태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받으신 분들의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전했다.

치매관련 상담은 영암군 치매안심센터(470-6031) 또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조대호 기자

나주 산포면, 뽕송뽕송 이불빨래방 사업 추진



매달 10여가구 이불 수거·배달

거된 이불 세탁 서비스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정창선 대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일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 업무 협약을 더욱 뜻깊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지속해온 지사협 위원들과 정창선 대표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현민 산포면장도 “코로나로 위축된 나눔 문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산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중소기업인 (유)이화와 최근 저소득층 주민의 깨끗한 이부자리 제공을 위한 ‘뽕송뽕송 이불 빨래방’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포면 지사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올 연말까지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이 열악한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달 세탁물 수거, 배달과 안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이화는 의류섬유제조·산업용세탁·세탁물 수거배달 등을 다루는 업체로 수

곡성군, 미취학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곡성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취학 아동 및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최근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미취학 아동 대상 3회,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 2회 실시했다. 서비스를 통해 미취학 아동들은 카페인과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아동들의 마음 안정을 위해 천연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

보육시설 교사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는 정신건강 마인드케어 기기를 이용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스트레스 상태와 두뇌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심리검사를 통해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졌다. 또한 우울감과 수면 개선 효과가 있는 tDCS(경두개자극기)를 이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과 스트레스 대처법을 배워보는 ‘마음 안녕’ 교육을 제



공하고,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자살 위험에 있는 이웃을 돕는 생명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영유아와 보육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363-9917)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양혜영 기자

무안군, 언택트 정신재활프로그램 꾸러미 키트 지원



생필품 9종으로 구성

무안군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의 우울감을 완화하고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190명에게 마음건강백신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꾸러미 지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대면 프로그램과 상담이 중단됨에 따라 심리적 고립감을 겪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심리적 방역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실시됐다. 꾸러미는 정신건강·방역 안내책자와 저주파 마사지기, 즉석식품 등 생필품 9종으로 구성됐으며, 정신건강전문인력

이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군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된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대신해 일상생활유지 능력, 우울감 검사 등을 평가해 1: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자문의 상담을 연계하는 등 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자 정성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